

# 고개마다 색다른 풍광... 이름마다 애뜻한 사연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 17 무등산 고갯길

무등산하면 잣고개, 장불재, 중머리재, 바람재, 늦재, 너릿재, 피재, 꼬막재 등 굽이굽이 절경을 이루는 고갯길을 빼놓을 수 없다. 고개마다 특색있는 풍경을 자랑하는데, 그 이름에는 나름대로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무등산을 대표하는 고갯길을 소개한다.

◇**잣고개**=북구 두암동과 석곡동 관할 청풍동 사이의 고개를 잣고개라고 한다. 동구 산수동과 북구 두암동에서 원효계곡, 무등산장으로 가는 길목이다. 고갯마루에 시가지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다. 잣고개라는 이름은 잣나무가 많아서, 또는 까치가 많이 날아온다고 해서 까치 작(鶻)을 써 작고개라고 했다는 일부 주장도 있으나, 옛날 성터가 있는 곳에는 '잣(잣)', '작' 등의 이름이 붙여졌다. 잣고개 주변 무진고성은 장대봉과 제4수원지 안쪽 산 능선을 따라 남북 1km, 동서 0.5km, 둘레 3.5km의 타원형으로 축조됐으며, 성안에선 '관(官)', '국(國)', '성(城)' 같은 명문이 새겨진 유물이 나왔다. 이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시대 중기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불재**=광주와 화순의 경계가 되는 해발 900m의 고갯길로, 광주 쪽에서 올라와 이 고개를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면 화순군 이서면이 나온다. 옛 화순 이서·동북에 사는 선조들은 광주에 오기위한 지름길로 이 고개를 애용했다고 한다. 지금은 규봉과 입석대, 서석대로 이어지는 인기 등산로이며, 고개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말 잔등 같은 능선은 백마능선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넓은 초원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을철이 능선 위에 피어난 억새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백마의 말갈기 같다고 해 불려진 애칭이다.

또 신중동국여지승람은 광주의 특산으로 장불동(재)에서 철이 생산됐다 했고, 유서석록에서는 장불천은 그 상류에서 쇠를 씻기 때문에 언제나 탁한 물이 흐르고 있다고 기록돼 있어 옛 선조들이 장불재 인근



매년 10월 무등산을 대표하는 고갯길인 장불재를 오르며 가을 절경으로 꼽히는 '은빛물결' 억새밭을 만날 수 있다.<광주일보 자료사진>

## 능선위 억새꽃 백마 말갈기 같다는 '장불재'

## 한국전쟁·오월항쟁 아픔 함께한 '너릿재' 등

에서 철광석을 채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머리재**=중머리재는 해발 608m의 높은 곳에 있지만, 정작 고개 위에 올라서면 넓은 초원이 형성돼 있다. 특히 중머리재는 바람 목으로, 키 높은 나무는 한 그루도 없고 억새풀과 철쭉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유사석록에서는 중령(中嶺)이라 했는데,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것을 스님의 머리에 비유해 중머리재로 부르게 됐다는 설도 있다. 중머리재는 해맞이 장소로도 유명하다.

◇**바람재**=증심사 입구에서 원효사 쪽으로 가려면 무등산의 능선을 넘어야 하는데, 바로 바람재(해발 470m)다. 바람재를 넘어 언덕길을 한참 걷다 보면 원효사에서 넘어오는 늦재와 마주치고, 시내 쪽

으로 내려가면 향로봉에 이른다. 반대로 가파른 고갯길을 걸어 정상 쪽으로 오르면 해발 800m 동화사 터에 다다른다. 또 주능선의 서남쪽 산허리 덕산너덜을 안고 도는 중머리길도 있다. 중머리길은 겨울철에도 눈이 쌓이지 않을 정도로 따뜻해 겨울철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등산로다.

◇**늦재**=원효사에서 바람재쪽으로 오르다 보면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고갯길이 나오는데 바로 늦재다. 지금은 순환도로 개설로 갈라졌지만, 옛 나무꾼들이 즐겨 다녔던 길이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무등산은 광주시민의 주 연료인 나무 공급원으로, 매일 수많은 나무꾼이 오르내렸다. 육당 최남선은 '심촌순례'에 열철 스펀클 때지어 방고를 울리고, 구성진 노랫

가락을 부르면서 늦재에 올라오는 나무꾼들을 만났다는 글을 남겼다.

◇**너릿재**=광주에서 화순읍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했던 고개다. 지난 1971년 2월 터널이 뚫리면서 화순과 광주를 연결하는 주 도로가 됐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아주 험준한 고개였다. 광복 전 후 혼란기에는 도둑이 끊어 행인들이 고개를 넘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너릿재는 광주·전남의 아픈 역사와도 함께 한 고갯길이다. 갑오동학농민전쟁때는 동학농민군 포로들이 일본군에 의해 무더기로 처형됐고, 1950년 한국 전쟁 때는 경찰관과 애국청년들이 인민군들에 의해 희생되기도 했다. 특히 1980년 5월에는 너릿재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버스 승객들이 30여명이 사망했다.

◇**피재**=지산원위에서 리프트카가 설치된 협곡을 따라 올라가면 가파른 고갯길이 나오는데, '피'가 많은 충장공 김덕령 장군이 자주 다녔다고 해 이름이 지어진 피재다. 고개를 넘으면 평두뫼를 거쳐 화암촌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고, 남쪽으로 돌면 향로봉, 북쪽으로 돌면 장원봉을 만나게 된다.

◇**배재**=화암마을을 지나 배재마을로 가는 중간 고갯길이 배재다. 배재를 넘어서면 김덕령 장군을 모신 충장사가 자리 잡고 있다. 배재에서 충효리로 가는 길에 충효동 도요지와 분청사기 전시실이 있는데, 도로포장이 되기 전엔 배재의 좌우에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장석과 백토가 허얇게 깔려 있었다고 한다. 배재라는 이름도 '백토재' 또는 '백재'로부터 왔다는 설이 있다.

◇**꼬막재**=무등산장에서 규봉암을 향해 의상봉의 뒤를 돌아 올라가면 꼬막처럼 둥글게 생긴 고개에 이르는데, 꼬막재(해발 640m)다. 꼬막재는 주변에 꼬막 같은 자갈이 깔려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꼬막재 일대는 피톤치드가 풍부한 삼나무와 편백이 울창해 웰빙숲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퐁잇재**=삼밭실 위쪽 인왕봉과 서석대 사이를 한퐁잇재라고 한다. 한퐁잇재는 무등산에서 가장 높은 고개로, 해발 980m다. 이름에 대한 기원은 없으나, 무등산에 김덕령 장군과 얽힌 전설이 많다는 점에서 한 많은 생을 마친 김장군의 한이 서렸다고 해 지어진 이름이라는 주장이 있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 나와 무등산 정지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과장)

## 역사길 탐방후 더 돈독해진 동문회



보라색 브이넥 셔츠로 멋을 낸 정지우 과장(오른쪽에서 4번째)이 지난 5월 무등산 역사길 탐방자인 환벽당에서 동문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맛집에서 계절음식에 술잔을 하는 게 유일한 취미였던 나는 지난 5월 어느 주말 동문모임행사로 무등산 산행을 나서게 됐다. 사실 동문의 떠돌이들이 겨우 나선 산행이었지만, 당시 무등산역사길 탐방은 내 생애의 즐거운 추억 중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참석자는 30명으로, 연령은 6살 꼬마부터 50대 선배들까지 다양했다. 처음 접해본 무등산 역사길은 기대 이상이었다. 코스도 넉넉한 무등산의 품답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편했다.

동문 모두가 평소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던 지 무등산 역사길을 걷는 내내 이야기 꽃을 피우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다. 아마도 이들은 무등산을 몸소 느끼는 것보다, 한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부족했던 가족과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할 듯했다.

무등산 역사길은 (사)광주대학교 송감석 교장의 인도에 따라 충장사부터 사촌 김윤재 재실, 지진관측소, 풍암정, 분청사기전시실, 충효분고, 금곡마을, 왕버들, 환벽당까지 이어졌다. 당시 힘든 기색은커녕 무엇이 그리

즐거운 지 '하하 호호' 웃으며 잘 따라와 준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아이들은 충효분고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시원한 공물로 갈증을 달래고, 논길을 달려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나는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을 비롯한 한 동문이 6살 아들에게 산딸기를 따주는 모습, 엄마를 따라 짐다리걸러 건너지 않는 아이의 모습, 산길을 오를 때 후배의 손을 잡아주는 동문 선배의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특히 각 코스에서 무등산과 호반의 역사를 들으며 광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무등산이 광주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기도 한 의미 있는 산행이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지친까지 감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광대역지진계가 무등산에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았다. 3시간 가까운 무등산 역사길 산행을 마치고 우리광 두부로 유명한 맛집에서 막걸리 한잔과 함께 산행의 소감을 나누며 동문회를 마무리했다. 결국, 유일한 취미인 술잔은 이날도 나와 함께한 셈이 됐다.

## 무등산 갤러리

## 정성섭 작 '무등-하얀산바람' (2013년)

캔버스에 아크릴(72.7 x 53cm)

"윤림동 자택과 학동 작업실에서 바라보는 무등산은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연출한다. 산이 하얀빛을 내뿜는 모습을 주위에 핀 꽃의 원색과 대비시켜 강조했다. 단순히 사물이나 자연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주는 느낌이나 변화를 표현하고 싶었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